

임실N치즈축제 경제 파급효과 얼마?

400억원 이상 잠정 집계... 농특산물 직접판매액은 20억원 기록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2017 임실N치즈축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내면서 청정지역 임실 이미지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린 임실N치즈축제의 대성공에 힘입어 치즈와 한우, 음식부스 등을 통한 농특산물 직접판매액은 2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백억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해는 지난 해 치즈축제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축제기간 동안 판매된 임실치즈와 피자, 유제품 및 체험 등 치즈 관련 매출액만 10억원에 달하고, 임실한우 판매액 역시 '청정지역 안심한우'라는 점을 앞세워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피자는 연일 매진행진을 기록하며, 치즈와 피자를

사고싶어도 사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임실N치즈와 관련제품 판매량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임실군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와 새마을부녀회, 여성농업경영인 등 주민들이 운영한 음식부스도 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세프, 마을가꾸기, 이동식 포차 등 음식과 체험부스에서 작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특산물 직접판매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임실군은 이번 축제의 대성공으로 인해 ▲임실N치즈 브랜드에 대한 전국적인 마케팅 성공과 ▲청정임실 이미지 확산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등 대표관광지 홍보 ▲임실지역 주요관광지 연계효과 등 400억원이 넘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됐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긴 추석연휴 기간과 맞물려 개최되면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추석명절을 전후해 임실치

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축제 이전에는 10만여명, 축제기간에만 35만여명 등 무려 45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등 명절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린 축제로 기록되고 있다.

축제개막 이전부터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임실IC 주변은 크게 밀렸고, 축제가 시작된 6일부터는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는 물론 임실읍내 거리까지 온통 차들로 가득차면서 초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이번 축제는 '웃어봐요! 치즈, 행복쫄~'이라는 슬로건으로 치즈라는 소재를 최대한 살려낸 10개 테마의 8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 다양성과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심민 군수는 "올해 축제에 기대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치즈판매장과 체험 및 음식 부스 매출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축제 성공에 힘입어 임실N치즈 브랜드가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게 됐고, 청정임실의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덕치면행복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과 함께 심진강변 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진강변 걸으며 가을정취 만끽

임실 천담권역 7개마을 어르신 대상 걷기행사 개최

임실군 덕치면행복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김재기, 박정규)는 지난 13일 천담권역 7개마을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과 함께 심진강변 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신설된 강진권역 맞춤형복지팀이 주최하고 덕치면행복보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라북도공동모금회 후援으로 진행됐다. 장산마을에서 출발해 천담권역 방문자센터까지 약 2km 거리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해설사의 아름다운 심진강이야기가 곁들여졌으며 덕치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장과 군수'를 감상했다.

김재기 공동위원장은 "걷기 행사를 통해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덕치면행복보장협의회는 '갤러리, 바르갠' 도배장관교체사업과 '행복배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27일 개최 흥부제, 포스터 확정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2회 흥부제에 공식 포스터를 확정하였다.

올해 포스터는 흥부와 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우애를 나누며 축제의 의미와 흥겨운 모습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였으며, 오방색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다소 해학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흥부제 포스터는 앞으로 흥부제가 흥에 겨워 함께 어울려 한판 멋지게 놀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행사 첫날인 10월 27일은 인월, 아영에서 터울림 행사를 추진하고,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은 시민의장, 흥부가축사 시상 등 시민의 날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막공연은 원일 예술총감독이 연출을 맡아 시립합창단 등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흥이 넘치는 공연을 펼친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흥부제를 축하하는 공연에 참여한다.

아울러 흥부의 나눔과 우애 정신을 바탕으로 기관·단체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국립민속국악원, 시립국악단, 농·축협, 산림조합, 아이돌협 협 등과의 연계, 시민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반려동물과 즐기는 '순창장류축제' 눈길

대구 수성대 동물관리과 연계 축제기간 반려동물부스 운영

오는 20일 열리는 순창장류축제는 관광객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의 전통장, 세계인의 일품소스'라는 주제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열리는 장류축제는 전통장류를 테마로 8개분야 66가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손짓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2017인본 떡볶이 오픈 파티'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대구 수성대학교 반려동물관리과와 연계해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반려동물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관리과 교수와 동아리 학생 등 150명이 운영하게 될 2개 부스에는 반려견 전시와 반려동물 호텔, 가



오는 20일 열리는 순창장류축제는 관광객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페 등을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없었던 관광객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으로, 장류축제장 내에서 반려동물을 보관해주고 카페 이용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반려동물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려들 것으로 군 측은 예상하고 있다.

반려동물 전시는 축제를 찾는 아이

들에게도 인기 만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순창 장류축제가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꼬치와 떠나는 소스여행, 반짝반짝 매주만들기 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해 아이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반려견 전시는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사회복지박람회 3500명 운집

40여개 시설 등 참여 대성황

남원시는 지난 14일 사랑의 광장에서 3,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남원시 사회복지 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제14회 남원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함께하는 복지! 행복한 남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40여개 시설,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민·관·학의 사회적 부분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공유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비롯하여 18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수상하였다.

각 시설, 기관, 단체별로 장애체험, 심리검사, 목공예품 전시, 꾸러미 나눔 등 37개 부스별로 각기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도서 나눔과 복지 토크벨이었다. 중앙 무대에서는 20여 팀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었으며, 점심으로 선원사에서 무료로 준비한 짜장면 2,500여 그릇은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남원시장(이환주)은 축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정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한분 한분이 지역의 복지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소중히 맡겨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노인의날 기념행사 성료

순창군이 지난 13일 일품공원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순창군의회 김종섭 의장, 최영희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김봉호 노인회장, 각 읍면 노인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구림농악대, 순창군 어울미당, 나이가가라 스포츠댄스, 팔덕면 신바람 노래교실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에서는 노인강령 낭독,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표창장은 황숙주 순창군수, 김종섭 순창군의회 의장, 김봉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이 주관해 시상했으며, 노인복지기여자에는 순창을 최정식씨가, 모범공무원 분야에서는 주민복지실 강인화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식후행사에서는 도립국악원 초청공연을 비롯해 백지원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엘리트 스포츠댄스, 산울림 춤추는 난다, 군산헬리아벨리 등으로 노인회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여기에 푸짐한 경품까지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